

남·북한 과학기술용어비교집 첫 출간

- 물리·화학에 이어 14개분야 출간예정

과총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박익수)와 공동으로 지난 2월 말에 「남북과학기술용어집」〈물리학편과 화학편〉을 각각 출간했다.

남북간 같은 낱줄, 같은 겨레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장 쉬운 초보적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남북간 언어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확보 및 계승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사업에서 학술 문화 교류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의 공동역량을 집결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북 과학기술용어의 정리가 우선적인 과제라 생각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남북에서 펴낸 과학기술용어집과 사전들을 참고로 하여 표제어(올림말)는 한국어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하

고, 표제어에 해당하는 조선어와 영어 대역을 주었다. 또한 조선어에 해당하는 한국어나 영어의 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조선어와 영어의 찾아보기를 책의 뒷부분에 실었다.

물리·화학에 이어 앞으로 14개 과학기술분야에 걸쳐 고루 출간될 예정인 이 학술용어집은 과학기술분야의 학술교류를 촉진시키고 각종 연구논문집 공동발간이나 교과서 등의 편찬에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며 동시에 남북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있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자문봉사단 지역경제 활성화 박차

- 광주 中企지원센터/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

과학기술자문봉사단 광주·호남지부(지부장 부척량 전남대 명예교수)는 지난 2월1일 오전 '광주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중소기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기술 및 경영애로 상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자문봉사단 광주·호남지부는 또 이날 오후 광주·전남 테크노파크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광주


·전남지역내 산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첨단 고가 기자재의 구입이나 활용에 관련된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이미 구축된 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활용하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과학기술자문봉사단과 광주·전남테크노파크는 이와 함께 상호 구축된 기술 정보 및 자료를 지역 산업체에 지속적

으로 제공하고, 지역 산업체가 기술 및 연구개발 자문을 해올 경우 성실하게 대응하며 상호 구축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부척량 지부장은 "현재 펼쳐지고 있는 국가간 경쟁은 과학기술 경쟁이지만 우리지역 경제

는 과학기술자들이 현저하게 부족, 과학기술 경쟁에서 크게 뒤쳐진게 사실"이라며 "지난 30~40년 동안 연구한 기술과 이론을 지역 기업들에게 적시에 제공,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총 명예회장 추대

과총은 지난 2월 13일 이사회를 열고 2000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안), 정관개정(안), 명예회장 추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새로 추대되는 명예회장은 다음과 같으며 이로써 과총의 명예회장은 현재 閔寬植 博士 1인에서 4인으로 늘어나게 된다.

- 權錫赫 성균관대 이사장(서울대총장/문교부·환경처장관/과총회장)
- 趙完圭 한국생물산업협회 이사장(서울대총장/문교부장관/과총회장)
- 崔亨燮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고문(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과학기술처장관/과총회장) 



광주·전남테크노파크(유한득 본부장/왼쪽)와 과학기술자문봉사단 광주·호남지부(부척량 지부장)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